

避世翁의 忠節과 松齊公의 節操가 서린 避世亭

避世亭은 忠清北道 槐山郡 文光面 五馬山 기슭에 자리한 정자로서 순창조씨의 9세손 趙紳(호는 避世翁)에 의하여 서기 1392년 창건된 정자이다.

정자라면 보통 산수가 뛰어난곳에 아름다운 곳에 풍류를 즐기기 위하여 지은 집을 말하나 이 정자는 고려가 망하자 “충신은 두 임금쯤 섬기지 아니한다”(不事二君之志)라고 避世翁께서 충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을 피할 목적으로 창건 하였으며 또한 14세손 趙世球(호는 松齊公)는 中宗(1506)때 端敬王后가 폐도 없이 폐출되고 무엄한 신하들이 조정에 가득함을 보고 “부정한 조정에서는 벼슬을 하지 아니한다”(不正之朝不仕之節)라고 벼슬을 사양하고 낙향하여 피세정 유허에 다시 정자를 세우고 여기에서 세을 피한 유서깊은 정자이다.

이 정자의 주인공인 避世翁은 천성이 정직하고 문행이 탁월하여 그 명성이 현저하고 고려말 國子進士(李朝때 成均館進士와 같음)에 급제 하였다. 壬申年(1392) 李成桂가 고려 공양왕의 왕위를 찬탈하고 朝鮮을 개국하기에 이르자 72인의 충신과 열사는 杜門洞으로 은거하고 避世翁은 같은 뜻에서 槐山, 松坪으로 낙향하여 五馬山 기슭에 삼간 소정(三間小亭) 하나를 세워 세상 피하는 정자라는 뜻에서 避世亭이라 이름하였으며, 또한 避世翁 자신의 호(號)로 삼았다. 정자에는 충절의 뜻이 담긴 春入西山, 尋古跡, 月從東海, 問高儀(봄이 서산(伯夷와 叔齊)에 삼간 소정(三間小亭)을 뜻함)에 왔으니 나도 그 고적을 찾아 온것같고, 달이 동해에 떠올라 그 밝은 빛은 마치 높은 의포를 묻는 것 같다)라는 절구 한수를 제시하고 伯夷叔齊의 절의를 본받아 이름과 몸을 숨기고 종신토록 이 정자에서 일관단심 망국 고려를 언모하며 불사 이군의 충절을 지켰다.

이때 고려문신 李原(호는 容粹(1368-1430) 우의정파 좌의정 역임)은 避世翁의 높은 의포와 맑은 절개를 다음과 같은 시로서 칭송하였다.

○謹呈 避世翁 (피세옹에게 삼가 드림)
千古直行 惟一士 四時貞節 特孤松
三韓前後 兼仁義 避世亭高 絕峽中

옛날부터 지금까지 공은 절개를 갖은 선비는 오직 이 한분 뿐이니 마치 사시 사절 정절을 변치않는 푸른 소나무와 같도다. 삼한시대를 전후해서 누가 가장 어진분인가? 피세정이 그 주인의 자조를 대신하여 저 절중에 드 높이 서 있도다)



避世亭이 건립된지 오랜세월이 지나, 황량한 빈터만 남게 되었다.

이때 이곳을 지나게 된 靜庵, 趙光祖(본관은 漢陽(1482~1519) 부제학, 대서원을 역임하고 己卯士禍때 유배 賜死)는 정자터에 올라 다음과 같은 두수의 시로서 避世翁을 추모하였다.

○過避世亭舊墟 (피세정 옛터를 지나면서)
避世亭留地, 溪山分外奇. 況有手澤在, 先生昔居斯.
(피세정이 세워져 있는 땅은 산이나 물이 가지고 있는 본분보다 더욱 빛나도다. 하물며 선생의 손때가 뽕고 옛날 이곳에 계셨으니 더할말 없이도)

○過避世亭有感 (피세정을 지나면서 느낀 감상)
物理隨(疑輪)羸積, 依依地有餘. 觀今清景澹, 認昔大人居.
(모든 사물의 이치는 지고 이기고, 모자람과 남는것으로 모아지나 땅은 넓고 넓어 남음이 있도다. 이제 맑은 경치가 이곳에 넘쳐 흐름을 보니 옛날 훌륭한분이 사시던곳임을 알겠노리)

松齊公께서 진세풍파(塵世風波)를 피하고자 낙향하여 피세정 유허에 다시 정자를 세우고 은거 할 때 절친한 벗인 靜庵 趙光祖는 다음과 같은 避世亭詩로서 선생의 높은 절개를 찬미하였다.

○贈松齊次 避世亭詩 (송제공에게 드리는 피세정시)
特松凌雪碧, 孤月照寒水, 欲識先生節, 請取松月看,
(특별한 소나무는 눈속에서도 푸르고, 외로운 저달빛은 어름같이 차갑고나 선생의 높은 절개 알려거든 저푸른

소나무와 밝은 달빛 볼지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임진왜란(1592년)을 비롯해서 여러번에 걸친 병란으로 정자는 또다시 훼손되고 빈터만 남게 되었다. 이때의 리 없는 사람이 정자터에 묘를 쓰기에 이르러서 1905년 趙煥淳(24세손 승헌)이 앞장서서 제초하여 묘는 파고 같은해 趙元永(25세손 행정) 등의 위신하는 상을 깨고 못에 빠지는 길 열에 한길씩이나 눈벽이 쌓여 있고 도로위는 눈녹은 물이 쿵쿵 소리내어 흐르며 나무 한그루없는 광활한 벌치지는 깊은 겨울 잠속에 있다.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다녀와서...

뚜 깊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평소 동경하고 꿈에도 그리던 백두산(중국명 長白山 높이 2,744m) 등정을 위해 1995. 6. 10 중국 항공편으로 심양(瀋陽: 일제때 奉天)을 거쳐 연길(延吉)에서 일박하고 다음날 여행사에서 제공된 버스편으로 약 7시간 소요되는 백두산 등정길에 올랐다.

큰 기대속에 지난 1990년 10월 미국 와싱턴에서 뉴욕까지의 버스 여행과 1991년 8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베린 그라드까지의 기차여행은 가도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황무지와 잠목 숲뿐인 무미건조한 여행이었다면 이번 백두산 여행길은 옹기 주기 모여사는 초가집, 먼지가 가득한 비포장도로 연결되지 않은 농경지등 옛날 우리나라 시골길을 여행하는듯한 친근감이 든다.

사 실 이곳 연변(延邊: 옛날 북간도)의 조선족 자치주는 고조선(古朝鮮)이라, 발해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쳐 우리민족의 기상과 얼이 숨쉬고 있는 고향의 땅이다. 또한 근세에 와서는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해의로 망명하여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선 애국지사들의 활동무대였던곳으로 애국혼이 서려 있는 땅이기도하다. 지금 이곳에는 조선족이 85만여명 살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40%) 넓은 들판의 논 농사를 돌보고 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 사는 조선족은 집집마다 초가집벽을 백색으로 칠해서 어렵고 외롭게 살면서도 백의 민족의 자긍심과 기상을 뚝뚝하게 펼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비 록 비포장이긴 하지만 비교적 잘 정비된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일송정 푸른 숲은 날이 붉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기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곳에 거진꿈이 갔었나" 선구자 노래에 나오는 웃속웃은 일송정과 해란강을 좌측으로 하고 산과 들과 농촌을 지나면서 표고는 점점 높아진다. 백두산이 가까워지면서 길 양옆에 꺾질이 흰 나무의 우거진 숲사이로 저 멀리 눈 덮인 신비스러운 백두산이 조금씩 자태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ㄷ 더이 백두산 입구에 이르면 중국의 실권자 동소평(鄧小平) 이 쓴 "長白山" 표시이 손님을 맞이하며

長白山과 天池를 이 서 있는 이곳 광장에서 추위에 대 등산복차림을 하고 찻차로 갈아탄다. 서울을 떠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던 날씨는 오늘따라 구름한점 없이천명하다. 날씨가 돌보아 진비에 쌓인 백두산의 제모습을 볼수 있다는 부푼기대와 설레임속에 구비구비 경사진 산길을 한참올라 천지가 가까워지니 계절로보아 6월중순 한여름인데도 예상과 깨고 못에 빠지는 길 열에 한길씩이나 눈벽이 쌓여 있고 도로위는 눈녹은 물이 쿵쿵 소리내어 흐르며 나무 한그루없는 광활한 벌치지는 깊은 겨울 잠속에 있다.

천 지 바로 못 미처서 찻차는 멈추고 눈 쌓인 가파른 언덕을 잠시 걸어 오르면 "백두산 천지, 長白山 天池" 라고 두줄로 된 자그마한 표시이 먼길을 어렵게 찾아온 손님을 제일먼저 맞이 한다. 이곳에 올라서서 사방을 바라보니 깊은 벼랑밑의 천지는 알벽이 평통처럼 둘러 싸여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천지를 둘러싼 산설인 우뚝 우뚝 높이 솟아있는 16개의 봉우리로 이어진 백두산은 손에 잡힐듯 한눈에 들어온다. 신비스러운 천지는 세월 가는지 모르고 광광 얼어 붙어 영롱한 광채를 발산하는 어름판이 넓고 넓게 펼쳐져 장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뽐내고 있다. 저 멀리바다나보이는 북한지역은 백두산이 광활하고 험난해서 접근 조차할수 없고 우리명을 지적해 두고 멀리 외국 땅에 서서 내나라를 바라보아야하는 서글픔과 한 맺힌 등정인파와 감격어린 "만세" 소리 "우리의 소위, 통일" 등 합창하는 소리만 정적을 깨고 백두산 천지 배아리 천다.

또 다시 기약 없는 길이기에 민족혼의 발원지를 오래 오래 추억속에 담으려는 욕심과 술한 전설 그리고 민족 정기가 서린 영산에 오른 감회에 젖어 잠시 머물다 아쉬움을 남긴채 하산길에 올랐다.

다 시 되돌아 오는 도중 눈길을 걸어서 장백폭포를 올라가는데 하루에도 열두번씩 변하는것이 백두산 일기라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같이 수행한 현지 교포 안내양 하는 말 "오늘 오신 손님은 복받은 분" 이란다. 많은 동포가 백두산을 찾지만 그중 70%는 날씨관계로 백두산의 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섭섭하게 되돌아 선다고 한다. 사실 우리가 백두산 오르기 3일전 까지만해도 눈이 쌓여서 찻차운행을 하지못했다니 수승이 간다.



淳昌趙氏의 뿌리

⑤행적이 전해내려 오지 않는 주요인물

- ① 10세 **趙 珉** : 成均進士 (피세공파의 직조)
- ② 11세 **趙 旅** : 果毅校尉, 五衛都總府可正 (피세공파의 직조)
- ③ 12세 **趙 怡** : 豐川府使 (평택, 서산, 해미, 양지, 지평, 청주파의 직조)
- ④ 12세 **趙 愉** : 司馬試掾, 萬項, 秦仁縣令, 증工曹參議 (여주,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
- ⑤ 13세 **趙 溥** : 將士郎 (평택, 서산, 해미, 양지, 지평, 청주파의 직조)
- ⑥ 13세 **趙 澣** : 宣傳官 (피세공파의 직조)
- ⑦ 14세 **趙 偉** : 通政大夫 (평택, 서산, 해미, 양지, 지평파의 직조)
- 14세 **趙老成** : 果毅校尉 (여주,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
- ⑨ 15세 **趙 銓** (1498~1554) : 陽城縣監 (평택, 서산, 해미, 양지, 지평파의 직조)
- ⑩ 15세 **趙 認** : 宣傳官 (평택파의 직조)
- ⑪ 15세 **趙 誠** (1517~1579) : 典醫, 監正 증직 戶判 (청주파의 직조)
- ⑫ 16세 **趙 環** (1538~1624) : 壽職 兪知 中樞府事 (해미, 양지, 지평파의 직조)
- ⑬ 16세 **趙邦順** : 虛候 (평택파의 직조)
- ⑭ 16세 **趙邦祿** (1551~1581) : 同知 中樞府事 (청주파의 직조)
- ⑮ 16세 **趙廷顯** (1549~1629) : 繕工監役, 陽智縣監, 社稷署令 廣興倉守 壽職 龍驤衛副司直 (여주, 단양, 예천, 상주파의 직조)
- ⑯ 16세 **趙德寬** (1538~1578) : 宣傳官 軍資監奉事, 奉常寺奉事, 軍資監主簿, 漢城主簿, 廣興倉守 증직 左丞 嘉善大夫 戶曹參判 (안촌, 쌍곡파의 직조)
- ⑰ 16세 **趙德柔** (1543~1607) : 武科 급제 (1583) 宣傳官 慶興鎭官 兵馬使 추증 兵曹參議 (지곡, 문경, 기성, 이안, 성종, 품곡, 청안파의 직조)
- ⑱ 16세 **趙德秀** : 宣傳官 三水府使 (소수파 (무후))
- ⑲ 16세 **趙德立** (1570생) : 軍資監奉事, 漢城主簿 工曹佐郎 (삼고, 감산, 송현, 원충, 소암, 한계, 락촌, 행정, 가주, 탑동파의 직조)
- ⑳ 16세 **趙德亮** : 從仕郎 (마진파의 직조)
- ㉑ 17세 **趙 淇** : 武科 급제 訓練判官 (청주파의 직조)
- ㉒ 17세 **趙 澈** (1564~1626) : 武科 급제 (인조) 三陟 府使 겸 折衝將軍 鎮撫管將 (청주파의 직조)
- ㉓ 17세 **趙 淦** : 通德郎 (청주파의 직조)
- ㉔ 17세 **趙 埴** (1580~1668) : 兪知 中樞府事 (이안파의 직조)
- ㉕ 17세 **趙 垺** : 將仕郎 (문동, 동막, 진천파의 직조)
- ㉖ 17세 **趙 坪** (1575~1629) : 將仕郎 (팔송파의 직조)
- ㉗ 17세 **趙 坂** (1598~1666) : 通訓大夫 軍資監正 (삼고, 감산, 송현, 원충 소암, 한계, 락촌파의 직조)
- ㉘ 17세 **趙 墳** : 龍驤衛 副護軍 증직 嘉善大夫 工曹參判 (행정파의 직조)
- ㉙ 17세 **趙 址** (1607~1654) : 工曹佐郎 (가주파의 직조)
- ㉚ 18세 **趙祭奎** (1586~1644) : 通德郎 증직 司憲府 執義 (평택파의 직조)
- ㉛ 18세 **趙輝奎** (1588~1639) : 進士 (평택파의 직조)
- ㉜ 18세 **趙相遇** (1614~1676) : 別提 증직 參議 (해미, 양지, 지평파의 직조)
- ㉝ 18세 **趙元奎** : 引儀 (평택파의 직조)
- ㉞ 18세 **趙應源** : 증직 軍資監 (청주파의 직조)
- ㉟ 18세 **趙興源** (1614~1681) : 武科 급제 萬戶 (청주파의 직조)
- ㊱ 18세 **趙長源** : 武科 급제 (효종) 禦侮護軍 南村 召募部將 (청주파의 직조)
- ㊲ 18세 **趙壽衝** : 乘節校尉 副司判 (문동, 동막파의 직조)
- ㊳ 18세 **趙壽星** : 工曹參議 (감산, 송현, 원충파의 직조)
- ㊴ 18세 **趙壽台** : 武科 급제 (락촌파의 직조)
- ㊵ 18세 **趙壽弘** : 兪知 中樞府事 (행정파의 직조)



“94” 淳昌趙氏大宗會 理事會 개회

95. 4. 1. 철중사제례와 순창조씨 세거비 제막식에 이어 파산 문광면 부녀회관에서 순창조씨대중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사무국장의 경과보고, 재무부장의 결산보고,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대중회장의 인사말씀과 토의사항순으로 진행되었다.

제 2 차 회비 납부 독촉

- 1994년과 1995년(2년분)의 회비를 95. 8. 31까지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내용은 년회비(2년분) 10,000원과 주소록발행 및 우송비등을 포함해서 10,000원 계 20,000원 입니다.
- 제 1 차 회비(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4년분) 20,000원을 현재까지 미납하신분은 이번 회비에 합산해서 4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금시에는 반드시 송금자 이름앞에 파(派)를 명시하십시오.

“예” 행정과 덕선

송금구좌 우 체 국 : 011775-0046769-11 조덕선
국민은행 : 025-01-0315-181

주소변경시에는 사진 연락바랍니다.

※주소변경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종친 명단

(주소록과 증보제8호)(1525동용56동반용)

평택파 鋪天, 光柱, 炳勳, 天柱, 炳基, 紋基
지평파 慶相, 奎相
청주파 敬錫
단양파 亨郁, 炳旭
쌍곡파 炳日, 炳榮
풀곡파 炳權, 瑄柱
진천파 泰牛
지곡파 龜柱
기성파 榮湜, 泰完, 炳學
팔송파 化柱, 庚湜, 雨湜, 奎湜, 炳湜, 福柱
完柱, 弼柱

장촌파 鍾學
이곡파 伯湜
삼고파 泰鳳, 健湜, 映洙
갑산파 炳勳
송현파 元湜, 哲完
원충파 權湜, 勉湜, 勇湜, 泰武, 瑞善, 永柱, 景柱, 龍柱
한계파 海湜
행정파 鳳鶴, 正湜
탑동파 慶柱
마전파 彰柱, 男柱, 勝柱
대柱, 莊柱, 興柱, 永湜, 京湜 (이상56명)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 명단

(95. 3. 1 - 95. 5. 31)

- 청주파 (2) 재선, 태건 각 40,000
행정파 (6) 청주 50,000 무주, 태경 각 40,000,
태원, 태록, 덕선 각 20,000
마전파 (3) 영주, 영주 (二人同名) 각 40,000 은식 20,000
갑산파 (2) 관선 40,000 범식 20,000
탑동파 (5) 화식 40,000 민식, 종선, 득주, 태완 각 20,000
진천파 (1) 태진 20,000
평택파 (5) 천용 100,000 (찬조 감사합니다)
정선, 용관 각 40,000 용만, 민기 각 20,000
지곡파 (2) 필재 40,000 병환 20,000
삼고파 (1) 명식 20,000

- 지평파 (1) 규상 20,000
이안파 (2) 태구 40,000 만주 20,000
팔송파 (3) 원식 40,000 범식, 태호 각 20,000
청안파 (2) 영숙, 용선 각 20,000
원충파 (2) 태득 40,000 태철 20,000
가주파 (1) 원식 20,000
문경파 (1) 영운 20,000
기성파 (1) 청선 20,000

파를 명시하지 않은 분 (파를 연락바람)

- 조연식 40,000 (4. 27 우체국) ※같은이름이 7명 있음
조태형 15,000 (5. 29 우체국) ※같은이름이 5명 있음
조남주 20,000 (3. 29 국민은행) ※같은이름이 10명 있음

(이상 43명 합계금액 1,265,000)